

시키보의 섬유부문 - 세 기둥 중심으로 5개년 비전 책정

시키보는 앞으로의 5개년 계획에서 5년 앞의 2008년도 경영비전을 책정하였다. 섬유부문에서는 ①편포를 봉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납품하는 사업의 강화 ②캐주얼 의재료(衣材料)분야의 직물 개척 ③직물제 유니폼(uniform) 분야의 다양화 등의 세 기둥으로 5년 동안에 완성하여야 할 비전을 책정하였다.

편포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인 멜텍스(Mertex)와 MGI가 방적, 편포, 봉제까지의 생산설비를 갖고 있으며, 중국에는 봉제 자회사인 상하이시키보(上海敷紡)가 있고, 일본에는 니트제품제조 자회사인 머메이드어패럴(Mermaid apparel)이 있다. 이들 자회사의 기능과 시키보 본사의 “소재력(素材力)”을 활용하여 봉제품 납품사업을 강화한다.

캐주얼 의재료(衣材料)시장에서는 2004년 4월에 신설된 패션 의재료부가 많은 사업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패션 의재료부가 판매하고 있는 천은 모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여러 자회사와 그 외의 관계회사 등을 포함한 시키보그룹에서 방직한 특수사로 생산된 소재들뿐이다. 일본 본사의 “소재력”을 바탕으로 한 경영으로, 패션 의재료부뿐만 아니라 의재료 제 1사업부(衣材料第一事業部)에서도 캐주얼 의재료 소재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유니폼분야에 있어서는 유니폼소재 시장을 “시키보만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규정하였다. 이제까지는 작업복소재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를 더욱 넓혀 서비스, 오피스, 메디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유니폼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깊게 파고들 계획이다. ♣